

**“무모한 말은 칼날처럼 찌르지만
지혜로운 자의 혀는 치유를 가져온다.” 잠언 12:18 -
테드 힐드브란트의 속담 이야기**

리지뷰 고등학교에서는 무모한 말과 잔혹한 언사가 빠르게 퍼져 나갔습니다. 문자 메시지보다, 사물함 사이에서 귓속말로 전해지는 소문보다 더 빠르게요. 그리고 미아 카터만큼 이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미아는 대부분의 날을 눈에 띄지 않는 채, 주변 세상이 인기와 드라마의 물결 속에서 요동치는 동안 사물함 문에 걸어둔 노트에 스케치를 그리는 데 만족했다. 하지만 그녀에 대한 잔혹한 믿이 들불처럼 퍼지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인기 많고 시끄러운 여왕벌 지망생인 캐런은 날카로운 혀를 가진 사람이었다. 특히 자신의 취향에 맞지 않거나 자신의 변덕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랬다. 캐런은 도서관에서 잠든 미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진으로 찍어 온라인에 올리고 *"삶을 갖기엔 너무 이상해"*라는 캡션을 달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미아는 복도마다 킁킁거리는 웃음소리를 따라다녔다. 미아는 자신이 한 걸음씩 조용히 움츠러드는 것을 느꼈다. 뒤이어 터져 나온 조롱 섞인 웃음소리는 마치 배를 찢린 듯했다.

미아는 울지는 않았지만, 속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다. 조던은 가장 잘생기지도, 가장 인기 있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어딘가 은근한 무게감이 있었다. 중요한 순간에 항상 옳은 말을 하는 듯했기에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다.

그는 미아가 쟁반을 떨어뜨리고 고개를 숙인 채 모든 구경꾼을 피하며 식당을 황급히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미아는 어둡고 외딴곳에 쓰러져 혼자 조용히 울었다.

리지뷰의 붐비는 전자 게시판에 조던은 이렇게 썼다.

"미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봐. 미아, 그 점을 빼앗기지 마!" 해시태그도, 사진도 없었다. 그저 평범하고 현명한 말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바뀌었다. 미아가 교실에 들어서자 속이 뒤틀렸다. 또다시 눈덩이처럼 쏟아지는 못마땅한 시선과 잔혹한 험담을 예상했던 것이다. 그런데 과학 시간에 거의 알지도 못하는 여학생이 미아에게 몸을 숙여 속삭였다. "야, 욕설 미안해. 네 그림 정말 멋지다. 언젠가 더 보고 싶어." 비꼬는 말들은 사라지고, 사과와 칭찬, 심지어 초대까지 쏟아졌다. 미아는 확신이 없어 교실 건너편을 힐끗 보았지만, 조던은 반대편에서 작고 지지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미아의 눈을 마주쳤다.

그 후 며칠 동안 사람들은 미아를 조롱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찾아 나섰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었지만,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찾아왔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빈자리를 채우기 시작했다.

나중에 미아는 체육관 뒤편 참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조던을 보고, "왜 그랬어?" 라고 물었습니다.

조던은 어깨만 으쓱했다. "말은 상처를 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치유할 수도 있죠. 할머니는 '무모한 말은 칼날처럼 찌르지만, 현명한 자의 혀는 치유를 가져온다'라는 옛 속담을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냥 우리 주변에도 치유가 좀 필요할까 싶었어요."

미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정말 필요했어요."